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 들어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1.6%가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후문 근처 골목의 환경 개선 요구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범죄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의 방법에는 특정 장소의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거나 조정하기,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시 기회를 증가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낙후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에 위치한 골목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이후 2년 동안 범죄 발생률이 무려 2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활용해 우리 학교 후문 근처의 골목을 어떻게 바꿔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골목 입구에 높게 쌓여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근처 공사장의 건축 자재들을 정리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골목길의 낡은 벽을 보수하고 그 벽에 화사한 색깔의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골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가능하겠죠? 이런 바람직한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연계가 되어 ‘우리 마을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의 손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배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바로 지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을 환경 개선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해야겠어. ㉠ 먼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어. 그 다음 ㉡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그리고 ㉢ 해결 방안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언급하면서 그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지. ㉣ 그 방법을 우리 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 끝으로 개선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지>

- 발표를 듣기 전 어떤 내용을 예상했었나요?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발표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세요.
- ‘범죄 예방 디자인’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낙후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이용이 증가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나서 이 발표가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 통계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 발표를 듣고 난 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 ○○구에 위치한 골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를 줄였는지 궁금하다. ㉣
-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우리 주변에 적용시켜 볼까요?
- 우리 집 앞의 놀이터에 으스스한 곳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불록 거울을 설치해 달라고 관할 기관에 건의해야겠다. ㉤

- 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주변 환경의 설계나 관리와도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② ‘범죄 예방 디자인’의 효과를 잘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 ③ 발표에서는 자료의 조사 기관과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④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군.
- ⑤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았기 때문에 ㉤은 적절한 답변이군.

[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학생의 초고

[A] 최근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어린이 통학 버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로 보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 교육의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학 버스 승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의 대상을 일반 운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그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이 마련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는 주로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유의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를 만나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 확인 후 통과하기, 주변을 살펴서 안전을 확보해 주기, 같이 길 건너 주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

3. [A]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밝힌다.
- ② 통념을 제시하여 문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④ 중심 화제의 특징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제시한다.

4.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 초고에 활용된 방안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본보에서는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 버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이르렀으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중략)…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개정된 법은 안전 교육, 보호자 탑승, 안전 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 ○○신문 -
-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8~10시, 오후 4~6시이다. …(중략)… ㉣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 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 연구 보고서 -

- ① ㉠의 결과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② ㉡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 ③ ㉢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④ ㉣에 제시된 원인을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⑤ ㉣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을 주장하였다.

5. <조건>에 따라 초고의 ㉠ 부분을 완성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할 것.
- 글에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독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① 몇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 함께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 ③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버스 승하차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전용 승하차 장소를 지정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사고가 감소할 것이다.
- ④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통학 버스 승하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안전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나 운영자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6.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담장이 낮다. →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
 ㉢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읽게 하셨다].

㉠ { 아기가 웃는다. →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
 철수가 짐을 졌다. →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 ① ㉠: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 ②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 ③ ㉢: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군.
- ④ ㉣: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 ⑤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결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8.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한⁰¹ ㉠

- ㉠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 ㉡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⁰² ㉡

- ㉠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
- ㉡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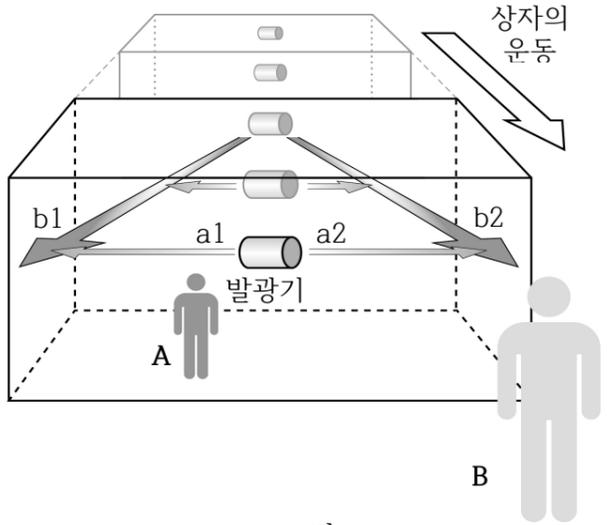
< 보 기 2 >

결승점을 ㉠한 200미터 앞두고 달리고 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훈련했던 동료 선수들의 응원 속에 나는 온 힘을 다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남아 있는 ㉤한 포기는 하지 말라고 외치던 ㉥한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힘을 낸다.

- ① ㉠은 '한⁰¹㉣'의 뜻으로, ㉡은 '한⁰¹㉢'의 뜻으로 쓰였겠군.
- ②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과 ㉡의 품사는 모두 관형사이겠군.
- ③ ㉢과 ㉣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④ ㉣의 '한'은 '한⁰¹㉠'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V걸음'으로 띄어 써야겠군.
- ⑤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의 '한'은 ㉤과 같은 의미로 쓰였겠군.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에게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E=mc^2$ 이라는 공식으로 에너지(E)와 질량(m)의 관계를 밝혔다.



<그림>

㉠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라는 두 가지 공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림>과 같은 ㉡ 가상의 사고(思考)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큰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다. 상자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상자 밖의 B를 향해 그 상자는 등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발광기가 어느 순간 좌우를 향해 완전히 같은 세기의 빛(에너지)을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광기가 빛을 발사했지만 <그림>의 a1,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발광기는 빛을 발사한 후에도 상자 안에서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B의 입장에서 상자가 자신을 향해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안의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발광기가 발사한 두 빛은 <그림>의 b1, b2와 같이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발사로 인한 반동이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의 운동에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자의 속도에 비해 발광기가 접근해 오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은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생각되었던 에너지와 질량이 광속(c)을 환산인자*로 하여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이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질량은 E/c^2 만큼 작아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광속(c)이 진공 중에서 대략 초속 30만 km이므로, 광속을 제곱한 값(c^2)은 대략 $9 \times 10^{16} \text{m}^2/\text{s}^2$ 의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 * 공리: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
- * 환산인자: 어떤 단위로 표시되는 양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거나 나누는 인자.

9. 밑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광속의 역할
- ③ 광속의 변화 이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 ④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나타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 ⑤ 에너지와 질량의 관련성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의 생각

10. ㉠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

- 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하겠군.
- ②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 여부도 고려되어야겠군.
- ③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반응 결과에 따른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는 증가했겠군.
- ④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군.
- ⑤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겠군.

11.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빛의 방출에는 반동이 수반된다고 본다.
- ② ㉡에서 A와 B가 인식하는 빛의 진행 방향은 다르다고 본다.
- ③ ㉢에서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에서 A와 B는 모두 발광기를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 ⑤ ㉢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본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चु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 우수절(雨水節): 24절기의 하나. 입춘(立春)과 경칩 사이
- * 이마받이: 이마를 부딪치는 짓
- * 옹송거리고: 몸을 움츠러들고
- * 햇웃: 솜을 두어 지은 옷

(나)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기가 앉은 가지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이 없다.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과거가 없는 탓일까
새는 냄새나는
자기의 체취도 없다.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생후(生後)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

- 황지우, 「출가하는 새」 -

(다)

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
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
㉢한죽(寒竹)은 주락하여* 군자를 대하온 듯
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
창창한 늙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
행화는 나뭇거리 술잔에 가득하고
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연류간*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
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
청려장 둘러 짚고 앞뒀에 올라가니
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
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
㉤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
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별나비 짹짹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주락하여: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
- * 북: 베들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
- * 연류간(烟柳間):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
- * 현포(玄圃): 선경과 같이 좋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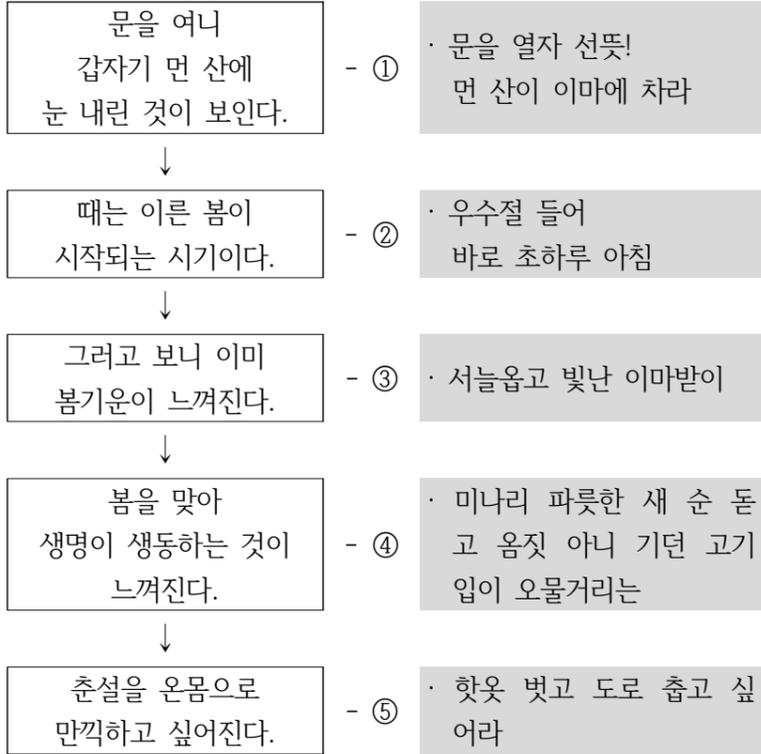
1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3. (가)와 (다)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다.
- ③ 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14. (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5. (나)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 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
- ③ 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제 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
- 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
- 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영한다고 할 수 있어.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② ㉡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는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
- ④ ㉦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
- ⑤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장이 처소에 돌아와서 수일 후에 사령 불러 분부하여,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이놈, 네 들으라! 네가 이춘풍이냐?”
 춘풍이 벌벌 떨며,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꾼 환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려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고. 매우 쳐라.”
 분부하자 사령놈 매를 들어 이십여 도를 힘껏 때리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기생 추월과 놀고 나니 일 푼도 남지 않고, 달리는 한 푼도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일분도 사정없이 매우 쳐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重治)하고,
 “이년, 바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 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몽둥이로 때리면서,
 “바베 다짐하라.”
 오십 도를 힘껏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관자하여 너를 죽이려 하였오되, 네 죄를 뉘우치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그런고로 너를 살리나니 호조 돈을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바치라.”
 추월이 여쭙오되,
 “열흘 말미만 주시오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다짐 써 올리니,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풀어 놓고 춘풍더러 이르되,
 “십 일 내에 오천 냥을 받아 가지고 경성으로 올라오라.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먼저 올라가니 내 뒤를 미처 올라와

집으로 찾아오라.”
 춘풍이 황황하여 아뢰되,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다 거두어 받으니 은혜 백골난 망이로소이다. 경성 가서 댁에 먼저 문안하오리이다.”
 여쭙더라.
 비장이 감사께 여쭙되,
 “㉠ 추월에게 설욕하고 춘풍도 찾잡고 호조 돈도 거두어 받으니 은혜 감축 무지하온 중, 소인 몸이 외람되이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삽기 죄송하여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
 감사 그러히 여겨 허락하니, 이튿날 감사께 하직하고 상으로 받은 돈 오만 냥을 환전(換錢) 부쳐 놓고, 떠나서 여러 날 만에 집에 와 정돈하고 환전도 찾은 후 남북을 벗어 놓고 춘풍 오기 기다리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돈을 되찾은 춘풍은 경성으로 돌아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하고 온 듯 아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에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비장 가로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가서 술에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증이나 풀게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매 비장이 꾸짖어 가로되,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왈피왈(此曰彼曰)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지위가 높은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어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헌 사발에 누룽밥, 된장 덩이를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어서 먹어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하여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놓고 웃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나니 완연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천만 뜻밖에 제 아내라. 춘풍이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하며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뤘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

* 관자: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나 공증한 문서.
 * 자모지례: 1년 동안의 변리를 월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화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월’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 ② ‘호조 돈’은 춘풍과 추월이 호되게 매를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감사’는 비장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 ④ ‘춘풍’은 평양에서 만난 비장이 아내인 것을 경성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다.
- ⑤ ‘비장’은 춘풍의 행동에 노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며 가정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어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부도덕하게 사는 남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춘풍전」에는 이런 남성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남장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춘풍은 무능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기생인 추월에게 호조 돈을 탕진한 춘풍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아내가 남장을 하고 비장으로 일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경성으로 돌아와서도 허세를 부리는 춘풍은 아직도 가정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아내가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아내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21. ㉠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근묵자흑(近墨者黑)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⑤ 일거양득(一舉兩得)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낸.

22.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23.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24.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25.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은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은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은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은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